

AUTHOR 박건택 (Gon Taik Park)

TITLE 칼뱅과 코페르니쿠스 논쟁 30년
(Thirty Years of Calvin-Copernicus debate)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8 no.2 (Summer, 1991):105-116

자들은 전자를 강조하였고, 進步的 성향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호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양자택일의 관계도 아니고 동시에 취하는 관계도 아니며 어느 것에 우열을 두는 관계도 아니다. “땅에 충만하라”(창 1 : 28)는 문화명령은 “땅끝까지 가라”(마 28 : 19-20)는 大委任命令과 언약적 차원에서 연결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두개의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神人 사이의 언약 관계에 나타난 두 단계일 뿐이다. 전자가 인생에게 ‘義務言約’을 말한다면, 후자는 언약의 파괴자에게 충보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回復言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άμην ὑμῖ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 : 19-20)는 대위임명령 가운데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基督敎의 救援道理’로만 생각한다면 縮小主義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모든 것” 속에 구원의 도리 뿐 아니라 문화명령을 포함한 모든 것으로 해석 할 때 비로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全 包括的인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福音이 결코 문화가 아니며, 文化 또한 복음은 아니나 양자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불가분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인해 문화명령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타락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고 할 때, 이 세대에서의 그리스인들이 맡은 使命은 너무나 중차대하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만 주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 (*)

갈뱅과 코페르니쿠스 논쟁 30년

朴 健 鐸

〈역사신학〉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종교, 정치, 사회, 경제적 혼돈 속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인문학, 특히 천문학에 있어서도 일대 혁명기를 지나고 있었다. 점성술에서 새로운 천문학의 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도 있었으나 그래도 이 방면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은 이 폴란드 천문학자가 발표한 대표작 「천체운동에 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 1543)이다. 아직 점성술과 천문학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인문자들(미란돌라, 피키노)과 개혁자들(루터, 멜랑톤)은 두 개의 전선을 형성하여 점성술과 싸웠다. 따라서 1510년부터 발표되어온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도 루터와 멜랑톤의 눈에는 성격적 우주관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다. 루터는 그의 「탁상 담화」(Table Talk, 1539)에서 코페르니쿠스를 공박했다: “이 친구는 천문학 전체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사물이 무질서에 내던져 진다해도 나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지를 명한 것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이다.”¹⁾

그렇다면 인문주의 출신의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 갈뱅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새로운 천문학 이론에 대한 갈뱅의 진정한 평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지난 30년 어간에 논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많은 학자들이 갈뱅의 입장을 밝히는 본문을 그의 글들에서 끌어내었으나 한결같이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우리는

1) Table Talk, No. 4638, in *Luther's Works*, vol. 54(Philadelphia, 1967), p. 358.

여기서 지난 30년간 이뤄진 이 논쟁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려 한다.

Edward Rosen의 글²⁾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전, 일반적으로 칼뱅은 루터와 그 입장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Bertrant Russell,³⁾ A. D. White⁴⁾ 등은 전혀 근거도 없이 코페르니쿠스와 성령을 대비시켜 논 말을 칼뱅이 한것으로 날조했다: “누가 성령의 권위 위에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감히 놓아두려할 것인가?” 이런 인용구는 칼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이런 작가들에게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칼뱅이 코페르니쿠스를 읽었거나 최소한 그의 이론에 대해 들은바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루터나 멜랑톤의 독일이 알고 있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칼뱅의 제네바가 몰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야 견해는 지지될 수 있었다.

E. Rosen의 작업은 이 견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칼뱅의 텍스트들에서 찾아보는 것이었는데, 그는 주석, 「강요」, 논문, 서간 등을 조사한 뒤 칼뱅에겐 코페르니쿠스 및 어떤 태양중심설의 언급이나 암시가 없다고 보고 결론내리기를 “칼뱅은 그(=코페르니쿠스)에 대해 들 어본 일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태도도 갖지 못했다”고 했다.⁵⁾

Rosen의 결론은 이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Joseph Ratner는 당시의 상황을 재검토하면서 어떻게 칼뱅이 죽을 때까지(1564) 코페르니쿠스 존재를 모를 수 있었단 말인가고 물었다. 하물며 루터가 25년 전(1539)에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인물에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지지하면서 Ratner는 말하기를 “칼뱅이 코페르니쿠스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Rosen은 칼뱅의 침묵을 그의 무지로 논증하고 있고 이것은 기본적 잘못을 저지르는 죄이다”라고 했다.⁶⁾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Rosen의 반론은 칼뱅의 무지가

2) E. Rosen, “Calvin's Attitude toward Copernicu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1(1960), pp.431~41.

3) *Religion and Science*, London, 1935.

4)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vol. I, New York, 1896.

5) E. Rosen, *op. cit.*, p.441.

6) J. Ratner, “Some Comments on Rosen's <Calvin's Attitude toward

아닌 칼뱅의 침묵을 해명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학문이해에 있어 칼뱅주의적 태도를 가진 Pierre Marcel은 칼뱅이 코페르니쿠스를 분명히 읽고 알았으나 그 체제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영역에서 제외시켰다고 보았다.⁷⁾ Gerrish도 이에 동조하여 이르기를 “그(칼뱅)가 코페르니쿠스를 알았으나 그와 꼭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⁸⁾

이러한 논쟁은 1971년 Richard Stauffer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칼뱅의 설교 가운데 한 텍스트를 찾아냄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고전 10~11장에 대한 8번째 설교(고전 10: 19-24)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설교연대는 대략 1556년 인듯하다. 문제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지를 압니다. 곧 선과 악을 위장하지 말고 솔직하며 진실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것을 고백해야 하고, 결코 저 몽상가들을 닮아서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살 탈하고 모순적인 정신을 갖고서 사방으로 트집잡을 것을 찾으며 자연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건에서 뿐만 아니라 기괴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고 사방으로 알리기 위해서도 그토록 광적인 어떤 인물을 봅니다. 그들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며, 정작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은 지구라고 말할 것입니다 (Ils diront que le Soleil ne se bouge, et que c'est la Terre qui se remue et qu'elle tourne). 우리가 그런 정신들을 볼 때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음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거울로 주사 그를 경외하는 데 머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악의로 논쟁하는 자들과 오직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은 모두 이리합니다. 누군가가 그들

Copernicu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22(1961), pp.382~85.

7) P. Marcel, “Calvin et la science: comment on fait l'histoire”, *La Revue Réformée*, 68(1966), pp.50~51.

8) B.A. Gerrish, “The Reformat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The Impact of the Church upon its Culture* (Chicago, 1968), pp. 241~55.

에게 '이것은 뜨겁다'고 말할라 치면, 그들은 '아니요 그것은 차다'고 응수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접은 것을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희다고 말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할 것입니다. 마치 눈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검다고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눈의 흰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백하게 반대로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질서를 바꾸려고 심지어 인간의 눈을 현혹시켜 인간의 모든 지각을 우둔케 하려 했던 미친자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⁹⁾

Stauffer는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에 하나의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일련의 글을 쓴 뒤,¹⁰⁾ 그는 칼뱅의 작품들을 통해 그의 우주관을 쓰는 곳에서 매우 확실한 어조로 이 본문을 해석했다. 이 본문은 "칼뱅이 코페르니쿠스를 언급하는 않지만 그의 발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가차없이 거절했음을" 증거한다.¹¹⁾ 여기서 칼뱅이 "기괴한 자연"을 부여받은 이들로 여긴 "몽상가들"(fantastiques), "광적인 인물들"(frenetiques), "미친자들"(forcenés)은 곧 코페르니쿠스의 지지자들로서 개혁자들의 눈엔 이들이 "자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인 것이다. Stauffer는 본문의 문맥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칼뱅은 문제의 설교에서 바울이 초대교인들에게 우주생물체의 참여를 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교황주의자들의 미신과 결탁하는 자들을 자각하고 있다. 이 니코데모파(복음신앙은 간직하면서도 로마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들)를 고발한 뒤, 칼뱅은 제네바 교인들에게 "선과 악을 위장하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고 권면했다. 이것이 우리가 인용한 본문의 시작이다. Stauffer에 따르면 칼뱅은 종교적 영역에서의 니코데모파와 자연질서의 영역에서의 코페르니쿠스 추종자들

9) *Calvini Opera*, vol. 49, col. 677.

10) R. Stauffer, "Calvin et Copérnic",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179(1971), pp. 31~40; "L'Attitude des Réformateurs à l'égard de Copérnic, in *Avant, avec, après Copérnic* (Paris, 1975), pp. 159~63.

11)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 1979, pp. 187~188.

을 유사한 인물들로 연결시킨 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새 천문학에 대해 "가혹한 비판"을 내리는 신세가 되었고, Stauffer는 이 사실을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칼뱅)는 어쩌면 성경의 지구중심설을 인간의 이해력에 적응된 화법, 내지는 세계묘사를 삼으면서 태양중심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리라"고 했다.¹²⁾

Robert White는 Stauffer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방법론과 결론에 비판을 가한다.¹³⁾ 우선 칼뱅의 방대한 작품들을 오직 한 문장도 채 안 되는 글귀를 가지고 이론을 정립시키려는 단점을 지적한다. 텍스트를 유사 텍스트와 비교해야 하는 해석학의 기본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체와 음조가 다른 설교와 주석이 비교되어야 한다. Stauffer의 접근에 있어 근본적 약점은 그가 그토록 달라붙고 있는 그 텍스트의 자격(status)을 아무때도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Stauffer의 결론은 칼뱅의 텍스트와 그 문맥을 정당하게 취급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비록 문제의 설교가 "반(反)코페르니쿠스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설교의 본의와 관계없는 우발적인 것이다. 게다가 폴란드 천문학자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설교자의 의도는 본문이 나오기 조금 앞서 칼뱅이 선포한 예언적 텍스트에 잘 나타난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부르는 자,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말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칼뱅의 주관심사는 개념적 도식으로서의 태양중심설이 아니라 그것의 기초가 된다고 믿는 "신랄함과 모순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개혁자가 진실이라고 여기는 우주관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뒤엎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은 독단과 불합리를 인정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 죄와 무죄를 섞으며, "참 종교" 및 "순수하고 거룩한 교리"를 부패시킨다. 이 "모순의 정신"이 전 포괄적이며 어느 것도 그 부식적 결과에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에 칼뱅의 논증은 육체적(지각의 객관적 명증의 유효성), 도덕적(선과 악 사이의 구별의 실재), 형이상학적(진리의 조성자로서의 하나님의 본질과 규범적

12) *Ibid.*

13) R. White, "Calvin and Copernicus: The Problem Reconsidered". *Calvin Theological Journal* 15(1980), pp. 233~43.

게시의 가능성을 변호함) 차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본문을 반(反)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칼뱅의 참된 비판의 목적을 모호케 한다.

White는 이렇게 말하면서 결코 칼뱅이 태양양중심설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칼뱅을 “지구중심설에 갇혀 있는 자”로 보는 점에서 Stauffer나 Rosen과 같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칼뱅이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접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했다.

Stauffer의 견해에 가장 강한 반발을 보인 사람은 Pierre Marcel이다. 그는 1980년 아예 이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210쪽에 달하는 글을 썼다.¹⁴⁾ 그는 1556년 설교를 문맥적으로 연구한 뒤, 문제의 텍스트가 새로운 천문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본문의 “자연질서”란 표현이 종교영역의 주관적 실제와 대립되는 객관의 “과학적” 실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설교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자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의 실천적 체험을 부인하는 것 만큼 어리석다.” 모두가 눈을 하얗게 보는데 자신은 그것을 검다고 말하는 자, “너의 더위가 내겐 춥다”고 말하는 자, 그리고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은 지구이며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실제로 사람들은 정확히 반대로 보고 느끼는데 말이다) 등등. 이런자들이 “신랄함과 모순의 정신을 갖고서 사방으로 트집잡을 것을 찾으며 자연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이요”, “분명한 악의로 논쟁하는 자들과 오직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문맥을 분명히 한 다음 Marcel은 Stauffer의 견해를 3가지 점에서 논박한다. 우선 본문의 “몽상가들”, “광적인 인물들”, “미친 자들” 등이 겨냥하는 것은 태양의 지구회전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조하는 자”들이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본질을 짓밟는 자들이며 “악이 선으로, 악덕이 덕목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자들이고, “선과 악이 구별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상을 퍼뜨

14) P. Marcel, Calvin et Copernic: la légende ou les faits? *La Revue Réformée*, no. 121 (1980).

리는 자들이다. 다음으로 이런 용어들(몽상가 등)이 고전 10장, 11장에 대한 19개의 설교들 가운데 계속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약 50회 등장하는 이 표현들은 죄의 뿌리를 겨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때로 동일하게 맹렬한 용어들을 “과학”과 과학적 탐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사용한다는 사실이다.¹⁵⁾

그렇다면 Marcel에게 있어 문제의 문장 (“그들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며 정작 움직이고 회전하는 것은 지구라고 말할 것입니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에 따르면 이 표현은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지구의 공전을 생각지 못했던 자들도 지구의 자전을 말한 바 있다. 만일 칼뱅이 코페르니쿠스 일파를 생각했다면 “움직이고”는 공전을 의미해야 하며, “회전하는”은 자전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실제로 이렇게 구분한 사람은 Rosen이다). 하지만 Marcel이 볼 때 이 동의어가 청중들에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느끼게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Marcel은 제3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는 이 문장을 “실재를 위장하는 사상에 대한 친숙한 고발 방법”으로 여기고 그런 경우를 11세기 성찬 논쟁 가운데 Berengarius의 제자 Adelman de Lieged의 글속에서 발견한다: “하늘과 별들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빠른 회전 운동으로 자전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믿는 자는 등대에서 멀어져가는 수부들 및 시냇가에서 떨어져 있는 나무들처럼 잘못되었다고 단언하는 것보다 더 모순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¹⁶⁾ “태양이 뜨겁지 않고 눈이 검다”고 믿는 자들의 견해 역시 Adelman은 모순으로 본다. 이 사람이 말한 3가지 비유(태양이 차갑고, 눈이 검고, 지구가 돌고)는 칼뱅의 글에 너무도 잘 부합된다. 다만 칼뱅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접했는지를 Marcel은 설명하지 못한다.

Marcel이 볼 때 칼뱅은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알았으나 그 어려운 수학적 “증거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개혁자는 침묵을 지킴으로 과학을 그 자체의 영역에 놓아 두었다. 그는 과학의 기술과 그 합법적 가정들의 존중이라는 공평의 모델을 구현했다. 그는 신학

15) *Ibid.*, p. 196.

16) *Ibid.*, p. 193에서 재인용.

과 교회를 편싸움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고 과학과 신앙이 각자 각기의 영역에 머물러 각자의 소명에 따라 활동하는 한, 평화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¹⁷⁾

White와 Marcel의 글들이 나온지 6년 뒤, Christopher B. Kaiser는 Marcel이 열어놓은 전망 속에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¹⁸⁾ 그는 문제의 텍스트가 코페르니쿠스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Castellio와 관련하며 칼뱅에게 제공된 자료가 Cicero의 *Academica*에 들어있는 유명한 글귀라고 말한다.

Kaiser는 우선 16세기 중엽의 지동설에 대해 논하면서 칼뱅이 지동설의 지식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자료들을 나열한 뒤 세가지 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한다. 첫째는 코페르니쿠스 자신의 글로서, Kaiser는 칼뱅이 자연철학자들과 수학자들에게만 알려진 폴란드 천문학자의 글을 직접 읽지는 않았을 것이고, 멜랑톤의 제자였던 George Joachim Rheticus의 *Narratio Prima*(1540, 제 2판은 1541)를 통해서 지동설 입장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루터와 멜랑톤을 통해서인데, 루터의 「탁상담화」(1539)는 칼뱅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멜랑톤의 두개의 글이 읽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Mithobius라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Initia doctrinae physics*에 대한 서문(1549출판)이다. 물론 칼뱅이 이 글들을 읽었다는 증거는 없다. Kaiser는 세번째,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키케로의 *Academica*를 든다. 키케로의 작품들은 이 시기에 재판이 나오고 있었고(1528, 1540) 그중 논란된 작품이 *Academica*였다. Kaiser는 이곳에서 칼뱅의 문제의 설교와 기막히게 상응하는 글귀를 발견한다: “Theophrastus가 확언하듯이, Syracusan Hicetas는 하늘, 태양, 달, 별들, 간단히 말해(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지해 있는, 세계에 지구외에는 움직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극대의 속도로 자체의 축을 돌고 회전함으로써, 지구가 정지하고 하늘이 움직일 때 생기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17) *Ibid.*, p. 201~204.

18) C.B. Kaiser, “Calvin, Copernicus and Castellio”,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1986), pp. 5~31.

낸다는 것이다.”¹⁹⁾

바로 이 문장 뒤에 키케로의 주제가 회람철학 세계의 논쟁 속에서 선과 악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더욱 가능성을 짚게 한다. 더욱이 칼뱅이 그의 세네카 관용론 주석(1532)에서 *Academica*를 분명히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Kaiser가 스스로 제시한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가장 개연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Kaiser는 키케로의 *Academica*가 칼뱅의 지동설 비유의 근거자료가 되는 이유로 다음 5가지를 든다: (1) *Academica*의 이슈들이 16세기 중반의 인문주의 서클에 폭넓게 논의되고 있었고 칼뱅도 최소한 부분적이거나 이 주제들에 친숙해 있었다; (2) 키케로는 그의 책에서 자연철학 및 도덕과 관련된 회의주의를 논하는데, 칼뱅도 설교에서 동일한 상황의 주제를 제시한다: (3) 칼뱅이 말한 “눈을 감다고 말할 인물”이 *Academica*에 들어있는 Anaxagoras에 대한 논평인듯 하다; (4) 검은 것을 희다고 부르고 백성의 눈을 현혹하며 그들의 지각을 우둔케 하는 자들에 대해 칼뱅이 분개해 하는 틀에 박힌 표현은 *Academica*에 Lucullus가 회의주의에 대해 내리는 평가와 거의 일치한다(“참을 거짓으로 혼동하고, 우리의 판단을 빼앗으며, 승인하는 능력을 약탈하고 우리의 지각마저 없애버리는 철학체계”); (5) 움직이는 것은 태양이기보다는 지구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칼뱅의 언급은 *Academica*에서 Hicetas의 관점에 대한 성격묘사와 맞아 떨어진다(앞의 인용 참고).²⁰⁾

이렇게 함으로써 Kaiser는 Stauffer, Rosen, White의 입장(이들에 따르면 문제의 텍스트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을 반영한다)을 지지하지 않고 Marcel의 견해(문제의 텍스트는 코페르니쿠스와 관계없다)를 따른다. 다만 칼뱅이 읽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Marcel이 제시한 Adelmann의 글보다 키케로의 *Academica*를 선호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5가지 이유를 든다: (1) 칼뱅이 Adelmann의 글보다 키케로의 *Academica*를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2) 칼뱅의 설교에서의 이슈는 위선적 행위와 회의적 사상이

19) *Ibid.*, p. 18.

20) *Ibid.*, p. 17~18.

지 성찬의 본질(Andelmann의 글의 경우)이 아니다; (3) Andelmann의 본문은 정지하는 것으로 하늘과 별단을 언급하는 반면, 칼뱅은 키케로의 글귀에서 하늘과 별을 생략한다; (4) 두 글귀를 비교해 볼 때 Andelmann과 칼뱅은 둘 다 *Academica*에 있는 *Hicetas*에 관한 글귀를 베끼고 있다; (5) 나아가 Andelmann이 *Academica*에서 표현을 끌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는 땅에서 보았을 때 하늘과 별이 명백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움직이는 배에서 보았을 때 육지의 물체가 명백히 움직인다는 사실과 연결시키고 있다. 칼뱅이 후자의 비유를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Andelmann 보다는 키케로의 언급에서 표현을 끌어왔음을 증거한다.²¹⁾

따라서 Kaiser에게 있어서 칼뱅이 설교한 텍스트의 두 명사절은 Marce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전과 공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키케로의 *Hicetas* 인용처럼 오직 자전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또한 칼뱅에게 “반 코페르니쿠스적” 또는 “태양중심설에 적대적”이란 용어를 쓰기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Kaiser는 칼뱅이 문제의 8번째 설교에서 우스개 거리로 삼는 지구의 움직임 개념을 말하기 위해 지구 역학(*geodynamic*)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결국 칼뱅은 비록 그가 반 코페르니쿠스적 인물, 또는 반 태양중심적 인물은 아니었다 할찌라도 반지구 역학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그가 지구가 본질적으로 움직임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설명할 길 없는 지구의 안정성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기 때문이다.”²²⁾

마지막으로 Kaiser는 어째서 칼뱅이 문제의 설교에서 이 옛문서(*Academica*)를 끌어들이는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었나? 그리고 실제 문제되고 있던 이슈는 무엇이었나? 등을 묻고 최종결론에 이른다.

우선 문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청중이 설교자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이여야 한다. 그리고 이 대적자는 분명 *Academica*를 알고 있었고 종교적 문제에 있어 기존 교리에 도전하며 나아가 종교문제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일반적 문제까지도 반박하였고 이런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보다 인간의 판단을 최종심판자

21) *Ibid.*, p. 20~21.

22) *Ibid.*, p. 22.

로 삼으며 성경도 애매하여 칼뱅이 가르친 몇몇 교리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Sebastian Castellio와 그의 동료들(Bellianists)이야말로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다.

Castellio는 1551년 라틴어 성경, 1555년 프랑스어 성경의 서문을 써서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종교문제에 있어 관용(*tolérance*)을 주장했다. 그는 때로 선(관용)이 악(박해)으로 갈아지는 것을 한탄했다. 칼뱅은 Castellio의 글을 1552년에 읽은 듯하고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은근히 비난했다. Servetus 사건(1553) 이후 칼뱅은 1554년 *Defensio orthodoxae fidei*를 펴내 이단자 박해를 변호했다. 그곳에서 그는 세르베투스를 형제로 여기고 성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단자 처벌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다른 미친 자들”에 대해서 한탄한다. 칼뱅은 경건에 있어 혼육이 불확실하고 의문시된다면 참된 종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묻는다. 이에 맞서 Castellio는 같은 해에 Martin Bellius란 익명으로 종교적 관용에 대한 변호서를 출간했다: *De haereticis an sint persequendi*. 이 대적자의 글을 또 다시 반박해야 하는 수고를 베즈(*Théodore de Bèze*)가 대신하여 동년 *De haereticis a civili Magistratu puniend is Libellus*를 작성한다.

그러나 1554년 까지의 Calvin-Castellio의 논쟁은 문제의 설교가 지닌 회의주의 보다는 관용의 문제를 주제로 갖는다. 회의주의가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1554년 후반기와 1555년 초의 일이다. 1554년 8월 칼뱅은 창세기 주석을 출판했다. 그는 헌정서간에서 분명 Castellio파를 지칭하면서 “건방진 잠문가들”로 부르며 이들이 “회의주의 세속적 방종으로 종교전체의 뿌리를 뽑고”, “소크라테스의 진짜 제자들”과 “신학과(*nova academia*)의 일원으로 자초한다고 말한다. Kaiser가 찾아낸 Cicero의 *Academica*에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의 설교와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Kaiser는 1552년 2월 20일자 Poitiers 교회에 보낸 칼뱅의 편지를 들춘다. 여기서 칼뱅은 Castellio의 제자 Jean Vertumien de Lavau가 가 뻘와 댤에 지역에서 그의 대적자의 가르침을 퍼뜨리려 한다고 경고하면서

이 Belliantists을 신학파로 묘사한다. 이외에도 Kaiser는 문제의 8번째 설교가 Castellio와 관계하는 이유를 나열한뒤 결론 내리기를 문제의 텍스트가 반대양중심설이 아닌 반 지구역학적이요, 반코페르니쿠스적이 아니라 반 카스텔리오적이라고 단언하면서 Rosen 이후 계속된 이 논쟁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였다.²³⁾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난 30년간 이 분야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1988년 William J. Bouwsma는 새로운 형식의 칼뱅전기를 쓰면서 이 논쟁과정을 무시하고 칼뱅이 코페르니쿠스 사상에 반대했다고 확인하면서 문제의 설교본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논쟁사를 살펴볼 필요가 느낀 것이다.²⁴⁾ (*)

23) *Ibid.*, p. 22~31.

24) Cf.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1988, p. 72.

Calvin과 Knox

洪 致 模
(서양사)

머 리 말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성취한 종교개혁은 그 뿌리를 유럽대륙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운동에 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역사가들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운동과 대륙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운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임무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계역할을 담당했던 존 녹쓰(John Knox)에 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여 언급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주인공으로서 녹쓰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칼빈(Calvin)으로부터 어떤 신학적 유산을 받았는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운동이 강한 칼빈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를 선명하게 설명한 글이나 저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녹쓰와 칼빈과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녹쓰가 칼빈으로부터 받은 신학사상이 개혁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가능한 한 그 핵심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